

# 성경 해석에 있어서 해석자의 위치

박 형 용  
(합동 신학교 교수)

— 목 차 —

서 언

1. 해석자의 주관성
  2. 고전 2:6-16의 해석
  3. 성령과 본문과 해석자와의 상호 관계
    - (1) 본문과 성령
    - (2) 본문과 해석자
    - (3) 성령과 해석자
    - (4) 성령의 주권적 승리
  4. 현대 신학의 허점(虛點)
    - (1) 자유주의의 허점
    - (2) 불트만과 비신화화의 허점
    - (3) 새로운 해석학과 (New Hermeneutic)의 허점
- 정리하는 말

## 서 언

성경 해석에 있어서 해석자의 위치는 대단히 중요하다. 성경 본문과 해석의 원리는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으나 해석자만은 객관성 유지가 매우 힘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경 기록의 과정은 해석자의 필요성을 함축적으로 제시해 주고 있다. 이는 성경 자체가 해석자의 위치를 보증해 준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나님은 인간 저자들을 사용하여 성경을 기록하셨다. 하나님이 인간 저자들을 사용할 때 그들을 기계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유기적으로 사용하셨다. 따라서 성경 저자들의 특성이 잘 짜여진 직물과 같이 성경 속에 반영되어 있다. 성경은 완전한 하나님의 작품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사람의 작품인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의 극치와 유기적 영감의 신비가 성경 기록 과정에서 잘 나타나고 있

는 것이다.

성경 기록에 있어서 성경 저자들의 중요성을 찾을 수 있는 것처럼 성경 해석에 있어서도 해석자의 중요성이 나타난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용하여 그의 계시를 기록하게 하였고 또 그의 계시를 풀어 설명하는 일도 인간에게 맡기셨다. 그런데 해석자는 완전히 객관성을 유지할 수 없다. 같은 해석 원리를 사용할지라도 사람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게 된다. 해석자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해석의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해석자가 객관성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해석자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이 되는 것이다.

### 1. 해석자의 주관성

이미 언급한 것처럼 해석자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서 있을 수 없다. 해석자는 역사적인 형편, 개인의 경험 또는 개인의 특질 등에 의해 항상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해석자가 본문을 대할 때는 이미 그를 제약시키는 다른 요소들의 영향이 있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피상적으로는 해석자를 제한시키고 있는 모든 요소를 제거하고 편견 없는 객관적인 상태를 유지시켜야 해석자가 올바른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된다. 하지만 이와 같은 노력은 불가능한 것이며 또 그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다. 왜냐하면 성경 해석은 비인격적인 방법으로 실행되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성경 해석의 원리

는 인격자인 사람을 도와 본문의 뜻을 찾게 한다. 성경 해석의 원리들은 사실상 독자이건 해석자이건을 막론하고 그 사람의 한 부분이 되는 것이다. 사실상 “해석자는 자신의 모든 것,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 그리고 자신이 되고자 하는 모든 것까지를 본문에 집중하게 하는 것이다.”<sup>1)</sup> 이 사실은 해석자가 편견 없는 객관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지적해 주고 있다. 그러므로 해석자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자신의 주관성이 성경 해석에 최소한의 영향을 미치는 데 그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해석자의 주관성은 좀더 근본적인 부분에서도 찾을 수 있다. 성도는 이미 성령의 조종을 받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객관을 상실한 상태이다. 하지만 성령의 조명 없이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할 수 없다. 자연인은 중생하지 않은 사람으로 성령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이다(유 19). 자연인은 죽은 자와 같고 죄로 어두워진 자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요 8:47, 약 1:21). 오직 성령의 조명을 받은 신령한 자만이 신령한 하나님의 일들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해석자가 절대적인 객관성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

1) A.B. Mickelsen, *Interpreting the Bible* (Grand Rapids: Eerdmans, 1970), pp. 65-66.



을 가르쳐 준다. 왜냐하면 성도가 되었다는 사실도 해석자로 하여금 절대적인 객관성을 유지할 수 없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 2. 고전 2:6-16의 해석

본 구절을 해석하면 해석자의 주관성이 더욱 명백해진다. 특별히 해석자가 “신령한 자” 즉 성령으로 중생된 성도라는 사실 때문에 생성되는 해석자의 주관성이 밝혀지게 된다.

고전 2:6-16은 좀더 넓은 문맥인 고전 1:18-3:23에 비추어 생각하여야 한다. 이 구절의 내용은 바울 신학의 중요한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다. 그 이유는 바울이 가르친 교훈을 오해한 나머지 고린도 성도들이 파당을 이루는 결과를 나타냈는데 이에 대한 교정을 위해 기록한 것이기 때문이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근본적인 전망으로 바라보면서 자신의 사역의 기본적인 주제를 전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본 구절에 나타난 중심된 용어는 지혜(σοφία)이다.<sup>2)</sup> 바울은 지혜를 두 가지 용도로 사용한다. 첫째, 지혜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된 지혜가 있다. 이런 지혜

는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 지혜는 십자가 상의 그리스도의 수난으로 이룩된 지혜이다. 이 지혜는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어리석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지혜로운 것이다(고전 1:21).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를 인식적인 방법으로 알 수 없음을 지적한다.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나 지식이나 통찰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되어진 것이다(고전 1:24).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에게 어리석은 것이다. 세상적인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선하신 뜻을 따라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 것이다(고전 1:21).

바울은 자신이 전한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이 세상의 관원들의 지혜도 아니라고 말한다(고전 2:6). 바울은 이 세상의 관원들이 자신이 전한 지혜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한다. 본문에서 사용된 “이 세상(this age)”이란 용어는 신약에서 전문적인 용어로 사용되었으며 그 당시 유대주의에서 빌어 온 용어이다. “이 세상(this age)”은 “오는 세상(the age to come)”과 대칭을 이루어 해석해야 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의 대칭은 현 세상 질서와 오는 세상 질서의 대칭을 뜻한다. 이 대칭은 전체 역사로 확장되어 창조에서 완성까지를 포함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현 세상 질서를 가리키는데

2) 고전 1:18-3:23 사이에 지혜가 사용된 구절은 다음과 같다. 고전 1:19, 20, 21, 22, 24, 25, 26, 27, 30; 2:1, 4, 5, 6, 7, 8, 13; 3:10, 18, 19, 20(총 20 회)

타락(the fall) 이후 죄에 굴복된 창조 질서를 가리킨다. 반대로 “오는 세상”은 새로운 창조를 가리킨다. 즉 구속된, 그리고 완성된 세상 질서를 가리킨다. “오는 세상”은 죄와 죄의 영향으로부터 자유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동일한 것이다. 바울이 함축적으로 말하는 요점은, 자신이 말하고 있는 지혜는 새로운 질서에 속하며 또한 궁극적 질서요 새로운 창조의 질서라고 말한다. 따라서 그 지혜는 “이 세상”에 내재한 지혜가 아니라고 말한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에게는 감추어진 비밀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이 비밀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만세 전에 교회의 영광을 위하여 미리 정해 놓은 것이다(고전 2:7). 하늘에서 이미 준비되고 구약 예언으로 약속된 이 비밀이 이제는 시간과 역사 안에 나타난 것이다. 「‘비밀’은 오랫동안 감추어져 있다가 이제는 계시된 것을 가리킨다(엡 3:3; 골 1:26). ‘감추어진’이란 말은(2:7) 전적으로 알려질 수 없다는 뜻이 아니요 아직 존재하지 않은 것을 뜻한다. ‘비밀’과 ‘감추어진’이란 용어들은 특히 잘 어울리는 용어들이다. 그 이유는 이 문맥에서 지혜는 그리스도의 그의 사역을 가리키기 때문이다(1:24, 30)」.<sup>3)</sup> ‘비밀’이라는 용어의

용법이 우리의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인간의 이해 능력으로는 헤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바울은 하나님이 솔선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나타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이 지혜를 이해할 수 없다고 명백히 한다(고전 2:9). 즉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이해 능력 밖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깊은 것(τὰ βάθη τοῦ θεοῦ)”이며 하나님의 깊은 모든 것이 우리에게 계시된 것이다(고전 2:10). 바울은 여기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계시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 강조하여 설명하고 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이성이나 통찰력이나 감정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그 일은 인간의 능력 밖의 일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미리 정해 놓으신 것이다.

바울은 고전 2:10에서 성령의 사역을 강조한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그의 지혜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다. 성령은 계시의 과정에서 도구로 사용되신 것이다.<sup>4)</sup> 그래서 성령은 “모든 것” 즉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실 수 있다(고전 2:10). 이 뜻은 성령만이 계시 과정에 관해 조

3) F.W. Grosheide, *Commentary on the First Epistle to the Corinthians*(NICNT, Grand Rapids: Eerdmans, 1968), p. 64.

4) διὰ τοῦ πνεύματος (διὰ + 소유격)은 성령이 도구로 사용된 사실을 증거한다. Maximilian Zerwick, *Biblical Greek* (Roma: Editrice Pontificio Istituto Biblico, 1963), pp. 37-38, (§ 112-113).



사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다. 성령만이 모든 것을 자세히 살펴 그것들을 나타내 주실 수 있다. 바울은 2:11에서 유추를 사용하여 논리를 전개시킨다. 그는 낮은 차원의 일과 높은 차원의 일을 유추적으로 비교한다. 여기 “사람의 속에 있는 영”은 성령을 가리키지 않고 인간의 영을 가리킨다. 즉 여기 영(πνεύμα)은 인간의 마음이나 심장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바울은 기본적으로 인간이 스스로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지식과 하나님이 스스로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지식을 비교하고 있는 것이다. 아무도 자신이 스스로를 아는 것과 같이 사람을 알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τὰ τοῦ θεοῦ)도 하나님이 친히 아는 것처럼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다(고전 2:11). 그런데 바울은 단순히 하나님이 아신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사정을 안다고 말한다. 고전 2:12은 성령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그 초점이 움직인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성령을 받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들을 알게 된다. 성령은 하나님 안에 있는 지식의 원리일 뿐만 아니라 지식의 전달을 위한 원리요 수단인 것이다.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계시된 일들은 구원에 관한 것이요 십자가에 관한 것이다. 바울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고 말한다. “세상의 영”이란 표현은 바울 서신을 포함한 신약성경 전체에서 여

기에 유일하게 사용된 표현이다. 이 표현이 사단이나 다른 영적 존재를 가리키지 않음에 틀림 없다. 바울이 이 표현을 여기에 사용한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령과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의 대칭을 강화시키기 위해서이다. 여기에 사용된 “세상”은 본 구절 여러 곳에서 사용된 “세상”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전 1:20, 21, 27, 28 참조). 따라서 여기에 나타난 세상(κόσμος)은 “하나님을 반역한 인류”를 가리키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또한 세상은 죄인을 전체적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 그런 기준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sup>5)</sup> 여기서 분명한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하는 데 전적으로 무능하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것이다.

바울은 고전 2:13을 관계대명사(ἃ)로 시작함으로 이전에 계시된 것과 연관을 시킨다. 바울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과 “성령의 가르치신 것”을 비교한 후 성령의 가르치신 것은 성령을 통해서만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한다. 즉 바울은 성령이 하나님의 지식을 전달한 사실에 대해 설명한다. 성령이 하나님의 지식을 전달하는 과정에 두 가지의 측면

5) 바울은 롬 8:6에서 같은 사상을 전개시킨다. 육신의 생각은 이 세상 중심의 세계관을 가리키며, 영의 생각은 오는 세상의 세계관을 가리킨다.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의 차이는 사망과 생명의 차이이다.

을 볼 수 있다. 한 면은 사도들과 그들의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의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요, 다른 면은 그 메시지를 받는 사람들의 반응인 것이다(고전 2:14-15 참조). 이처럼 계시와 반응의 패턴이 나타나는 것이다. 바울은 자신의 메시지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지적한다. 그리고 바울은 말씀의 복수성을 지적하고 그 말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말한다. 바울은 계시나 사상의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말들은 성령에 의해 가르침 받은 것임을 확인한다. 바울은 어떤 의미에서 축자 영감(verbally inspiration)을 주장하고 있다.<sup>6)</sup> 바울이 사용한 말씀들은 인간 지혜의 형태로 된 것이 아니요 성령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것이다.

바울은 고전 2:14-15에서 “육에 속한 사람”과 “신령한 자”를 비교 설명한다. 육에 속한 사람은 자연인으로 중생하지 못한 사람이다. 따라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2:11)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은 육에 속한 사람에게서 어리석은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반대로 신령한 자는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이요 성령의 조종을 받는 사람이다. 신령한 자는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하고 그 계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게 된다. 결국 신령한 자는 성령의 사역의 서어클 안에 포함되게 된다.

바울은 여기서 성령이 계시한 것에 대한 반응은 두 방향으로 나타난다고 말한다(고전 2:13). 사람이 그것을 수납하든지, 배척하든지 둘 중의 하나이다. 바울은 “육에 속한 사람”과 “신령한 자”를 구분하여 세상의 모든 사람이 어느 한쪽에 속함을 암시하고 있다. 육에 속한 사람, 즉 자연인은 죄의 파괴와 전적 부패에 의해 조종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이다. 자연인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 즉 계시를 수납하지 못한다. 더 나아가 자연인은 하나님의 계시를 어리석은 것으로 생각한다. 바울은 좀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 자연인은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 없다고 못박고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바울은 신령한 사람은 성령이 주시는 분별력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한다.<sup>7)</sup> 이처럼 신령한 자는 성령의 사역의 서어클 안에 속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

바울은 본 구절에서 성령의 사역의 포괄적인 특성을 설명한다. 신령한 자가 모든 것을 분별한다는 사실

6) G.G. Findlay, *St. Paul's First Epistle to the Corinthians (The Expositor's Greek Testament, Grand Rapids: Eerdmans, 1980), p. 783.*

7) 바울은 엡 1:17에서, 하나님께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πνεῦμα σοφίας καὶ ἀποκάλυψης)”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 달라고 기



이 이를 증거한다(고전 2:15). 이 말은 신령한 사람이 신비적으로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는 뜻도 아니요 하나님에 대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는 뜻도 아니다. 또한 신령한 사람이 모든 종류의 정보를 아는 데 전문인이 될 수 있다는 뜻도 아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가 단순히 인생 삶의 종교적인 부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요 다른 모든 부분에도 연관됨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바울은 여기서 알아야 할 모든 것의 참다운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계시가 본질적인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바울은 고전 2:16에서 사 40:13을 인용한다. 이사야서의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전포괄적인 속성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구절이다. 바울은 고전 2:16에서 사 40:13을 인용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했다고 결론짓는다. 이 말씀의 뜻은 신령한 자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고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골 2:3; 3:22, 23).

도한다. 이는 지혜와 계시의 공급자인 성령을 에베소 성도들에게 주셔서 하나님과 그의 축복의 풍성함을 알게 되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다. 이는 고전 2:6-16의 내용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신령한 사람은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구원을 통해 바른 이해를 할 수 있는 열쇠를 소유하게 된다. 우주의 모든 것에 대한 바른 이해도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해하는 열쇠로만 접근이 가능하다. 이처럼 성도들은 구원 계시 속에서 우주의 모든 것에 대한 열쇠를 소유하게 되는 것이다. 구원 계시를 이해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참된 것이다. 궁극적인 진리를 바로 이해하는 사람은 다른 사건들도 바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신령한 자는 “성령의 사역의 서어클” 안에 붙잡혀 속박 속에 있지만 사실상 성령에 매인 이 속박이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지적 자유가 되는 것이다. 성령에 매여 얻은 지적인 자유야말로 완전한 지식에 대한 열쇠가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해석을 바탕으로 몇 가지 요약해 보자.

① 그리스도의 사건은 인간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다. 그리스도의 사건은 하나님의 지혜로 이룩된 사건으로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어리석은 것으로 나타난다. 오직 신령한 자만이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할 수 있다.

② 성령은 하나님의 사정, 즉 하나님의 비밀을 성도들에게 계시해 주셨다. 성령은 계시 전달의 주체가 되신다. 오직 성령만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비밀

을 이해할 수 없다.

③ 하나님의 비밀은 어떤 신비스런 것을 가리키지 않고 오래토록 감춰었다가 이제는 계시된 그리스도 사건을 가리킨다(롬 16:26).

④ 신령한 자, 즉 중생된 자만이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할 수 있다. 신령한 자는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의 조종을 받는 사람이다. 이 사실은 해석자가 완전한 객관을 유지할 수 없음을 가르친다. 해석자는 어느 정도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 3. 성령과 본문과 해석자와의 상호 관계

본문과 해석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본문의 우월권은 항상 유지되어야 한다. 본문은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 계시로 변함이 없지만 해석자는 자신의 주관성에 매여 있는 상태이다. 그리고 성령의 도움과 조명 없이는 해석자가 성경 본문의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 신학에서는 본문과 전혀 상관없는 해석자의 철학적인 방법론을 사용하여 성경 본문을 연구하려고 한다.

이와 같은 연구의 결과는 결국 성경에서 서로 상충되는 내용만 발견하게 된다. 해석자는 성경 연구를 할 때 올바른 방법론을 사용해야 한다. 그런데 올바른 방법론은 “성경 본문에 의해서” 성립되어진 것이어야 한

다. 여기서 성령과 본문과 해석자와의 상호 관계를 고찰함으로써 성경 해석에 있어서 해석자의 위치를 더 명백히 밝히고자 한다.

#### (1) 본문과 성령

성령과 본문의 관계에 있어서 성경 본문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졌다(딤후 3:16; 벧후 1:19-21). 여기서 본문과 성령과의 가장 밀접한 관계를 설명하는 구절인 딤후 3:16을 주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생각된다.

[딤후 3:16 해석]

바울은 본문에서 성경의 실제적이고 기능적인 가치를 생각하면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가 진리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거짓 교사들보다 얼마나 더 유익한 위치에 있는지를 상기시킨다. 디모데는 어릴 적부터 성경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딤후 3:14-15). 그래서 바울은 성경의 본질을 설명하는 내용을 소개함으로써 성경이 최고의 가치를 소유하고 있다고 말한다(딤후 3:16).

여기서 본문의 문장 구성에 관해 잠시 생각하는 것이 유익하리라 생각된다. 바울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sup>8)</sup>라고 말한다. 여기서 “성경(γραφή)”은 어떤 책을 가리키며, “모든 성경(πάσα γραφή)”의 “모든”은 무슨 뜻이며, 그

8) *πάσα γραφή θεόπνευστος.*



리고 문맥에서 “하나님의 감동(*θεόπνευστος*)”을 서술적으로 해석할 것인지 한정적으로 해석할 것인지를 고찰해야 한다.

첫째, 성경(*γραφή*)은 어떤 책을 가리키는가? 본문의 성경은 구약을 가리킴에 틀림없다. 그런데 그라페(성경)라는 말은 구약의 통일성을 강조하며 구약 전체를 가리키는 전문적인 용어인 것이다. 바울은 여기서 그라페를 관사 없이 사용했다. 그라페가 관사 없이 사용된 예는 바울 서신 가운데서 여기가 유일한 곳이다. 이 사실은 바울이 의도적으로 이런 문장 구조를 만들었다고 생각하게 한다. 그리고 그라페에 질적인 의미를 부여하여 “그라페”의 질(質)을 소유한 모든 기록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는 사실을 함축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이 의미는 구약뿐만 아니라 그 당시 기록의 과정에 있는 문서들도 “그라페”에 속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참조 벤후 3:16).<sup>9)</sup>

둘째, 모든 성경(*πᾶσα γραφή*)의 “모든”은 무슨 뜻인가. 파사(*πᾶσα*)를 집합적인 개념으로 생각하여 전체(all)를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하는

해석과, 개별적인 개념으로 생각하여 전체(every)를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하는 해석이 있다. 어떤 이는 “모든”을 개별적인 개념으로 생각하여 성경의 어느 부분은 영감되고, 또 어느 부분은 영감되지 않았다는 사상을 인출해 낸다. 그러나 성경의 어떤 저자도 성경으로 분류된 어떤 책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지지 않았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다.<sup>10)</sup> 본문의 문맥으로 보아 집합적인 개념의 전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집합적인 개념의 전체나 개별적인 개념의 전체는 결국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어느 쪽을 택하더라도 문제가 없다.

셋째, 문맥에서 하나님의 감동(*θεόπνευστος*)을 서술적 위치와 한정적 위치 중 어느 쪽으로 해석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감동을 서술적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볼 때 본문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되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을 한정적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볼 때, 본문은 “모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으로 해석해야 한다. 하나님의 감동이 한정적 위치에 있으면 하나님의 감동이 성경을 직접

9) Maximilian Zerwick, *Biblical Greek*, p. 61 (§ 189)은 “Hence in *πᾶσα γραφή θεόπνευστος* 2 Tim 3, 16 it is correct to insist on the absence of the article as showing that inspiration belongs to Scripture as such(⟨all Scripture...⟩), whereas with the article(⟨all

the Scripture...⟩) it would simply register the fact that the existing Scripture was inspired, without establishing a formal principle.”라고 말한다.

10) I Howard Marshall, *Biblical Inspiration* (Grand Rapids: Eerdmans, 1983), p. 25.

수식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이다.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감동을 한정적으로보다는 서술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그 이유는 첫째, *θεόπνευστος*와 *ώφέλιμος*가 그리고(*καί*)로 연결되어 있는데 *θεόπνευστος*를 한정적으로 해석하면 *ώφέλιμος*도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그러나 본문에서 *ώφέλιμος*를 한정적으로 해석하면 본문의 의미가 잘 통하지 않는다. 둘째, *θεόπνευστος*를 한정적으로 생각할 경우, 즉 “모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이라고 번역하면 그 의미 속에 성경의 어떤 구절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지지 않은 것이 있을 수도 있다는 사상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감동(*θεόπνευστος*)”의 뜻은 무엇인가? 이 용어는 신약 성경에서 한 번 등장하는 단어이다(*hapax legomenon*). 그리고 이 용어는 동사로 구성된 형용사이다(*verbal adjective*).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야 할 것은 *θεόπνευστος*가 능동적으로 사용되었느냐, 수동적으로 사용되었느냐이다. 이 용어를 능동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이 숨을 내뿜고 계시는(*God-breathing*)”의 뜻으로 해석되며, 수동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이 숨을 내뿜으신(*God-breathed*)”의 뜻으로 해석된다. 성경의 영감과 이 용법을 연결시키면 “성경이 영감시키고 있느냐(*Scripture is inspiring*)”와 “성경이 영감되었느냐(*Scripture is inspired*)”로 달라진다. 이 문제는

얼핏 보기에 큰 문제가 없는 듯싶다. 하지만 *θεόπνευστος*를 능동으로 취하느냐, 수동으로 취하느냐에 따라 성경 영감에 대한 견해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만약 *θεόπνευστος*를 능동으로 취하면 성경은 궁극적인 의의를 상실하게 된다. 성경은 단지 영감의 도구나 수단 역할을 하는데 그치는 것이다. 그럴 경우 성경의 기원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 성경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행위에 관심이 집중되는 것이다. 반대로 *θεόπνευστος*를 수동으로 취하면<sup>11)</sup> 성경은 궁극적인 의의를 소유하게 되며 성경이 신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음을 명백히 하는 것이다. 이 경우는 하나님이 숨을 내쉬는 행위의 산물로서 성경의 본문을 취급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영감 활동의 결과로서 성경 본문을 생각하는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적인 내뿜는 호흡에 의해 생성된 산물이다.<sup>12)</sup> 하

11) 일반적으로 동사적 형용사의 어미가 *-tos*로 끝나면 수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ἀγαπητός*의 경우도 “사랑받는(*beloved*)”의 뜻으로 사용된다(마 3:17).

12) 영어의 *Inspiration*은 라틴어의 *inspirata*에서 왔다. 그런데 이 용어는 “숨을 뿜어 들인다.”는 개념을 함축적으로 가지고 있다. 하지만 헬라어의 본 뜻은 “숨을 뿜어 밖으로 낸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한글의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이란 표현은 이런 오해를 해결할 수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된다.



나님의 이런 행위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문서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성경은 그 기원이 바로 하나님 자신으로부터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성경 본문의 저자이신 것이다.

지금까지의 연구를 근거로 볼 때 성령이 성경 본문의 저자임이 확실해졌다. 따라서 성경은 저자이신 성령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이미 성취하신 사역과 지금 성취하고 있는 사역을 설명해 준다. 즉 성경은 성령의 하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성령과 본문과의 밀접성을 찾을 수 있다. 성령 없이는 본문의 권위가 있을 수 없고 본문 없이는 성령의 구체적인 사역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 (2) 본문과 해석자

본문과 해석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성경은 주권성을 나타낸다. 그런데 성령은 부활하셔서 살려 주는 영(The Life-giving Spirit)이 되신 예수님과 같은 기능을 발휘하신다(참조, 고전 15:45). 눅 24:45 과 눅 24:32 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 주시고 마음을 뜨겁게 하셔서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이는 사실상 예수님 자신이 살아 계실 때 성령의 기능으로 설명하신 내용과 일치한다(요 14:16, 26; 15:26; 16:7, 13). 즉 진리를 알게 하고 성경을 풀어 주는 일은 성령의 기능이

다. 그러므로 눅 24:32, 45 에서 예수님 자신이 성경 해석의 기능을 발휘하신 것은 예수님이 부활 후에 살려 주는 영으로서 기능적으로 성령과 일치된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 해석에 있어서 성령과 살려 주시는 영이 같이 주권성을 유지한다고 말할 수 있다.

예수님은 공생애 기간 중 보혜사 성령을 보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다(요 14:16, 26; 15:26; 16:7-14). 요 16:13 에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신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있을 성령의 사역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 성령의 사역은 예수님이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며(요 14:26),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하며(요 15:26), 그리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 일”(요 16:7-11) 들이 될 것이다.

오순절에 보혜사가 오시기 전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지 못했다. 예수님이 그의 수난과 죽음을 예고했을 때 제자들은 항상 그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수납하지 못하는 태도를 취했다(눅 9:43-45; 막 9:32). 그러나 오순절 때 보혜사 성령이 임하심으로 제자들은 성령의 도움으로 구속적 사건인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

를 깨달을 수 있었다. 이는 오순절 이후 성령의 사역의 특징이 계시를 이해하게 하는 일, 즉 성경 해석임을 증거하고 있다. 성경 해석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신약 교회에 주신 새로운 질서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요 16:13에 오실 성령의 역할을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라고 묘사했는데, 오순절 이후 행 8장에 나타난 빌립의 해석 행위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역할이기 때문이다. 행 8:31은 빌립의 성경 해석 행위를 “인도하신다(ὁδηγήσει)”라는 말로 묘사한다. 그러므로 요 16:13과 행 8:31을 오순절 이전과 오순절 이후의 관점에서 비교할 때 빌립이 행한 성경 해석 행위는 이미 성령의 활동으로 예고된 바와 같이 빌립이 성령의 도움으로 실행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빌립은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성경 해석을 했다. 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약속한 성경 해석의 기능이 교회에 부여된 새로운 질서임을 증거한다. 예수님의 계시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어졌다. 그리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교회의 터전이 된다(엡 2:20).<sup>13)</sup> 따라서 사

도들과 선지자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계시의 말씀을 설명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이것이 신약 교회가 축복으로 받은 성경 해석적 기능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진리가 불분명한 입장에 의해서나 비진리에 의해 도전을 받을 때 위축됨이 없이 성경 해석의 기능을 통해 진리를 수호해 나갈 사명이 있는 것이다. 예수님의 약속은 진리가 도전을 받을 때 성경 해석이 계속되어질 것이라는 것이다.

### (3) 성령과 해석자

성령과 해석자와의 관계는 보혜사로서 성령의 기능을 연구하면 명백해진다. 성령은 알리시는 일을 하고(요 16:13), 책망하시는 일과(요 16:8)<sup>14)</sup> 증거하는 일을 하시며(요 15:25 이하) 가르치시고 또 생각나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요 14:26).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의 행위는 이해를 돕고 뜻을 풀어 주는 해석적 행위인 것이다.

그런데 해석자의 역할도 이해를 돕고 뜻을 풀어 주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성령의 역할과 해석자의 역

13) 엡 2:20의 선지자는 구약의 선지자를 가리키지 않고 신약의 선지자들을 가리킨다. 엡 3:5의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신약의 선지를 가리킴에 틀림 없다. 왜냐하면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라는 한정시키는 구절이 구약의 선지자를 제외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14) 요 16:8에 사용된 ἐλέγχω의 뜻은 첫째, “bring to light, expose, set forth”이며, 둘째, “convict or convince some of something, point something out to someone”으로서 본문에서는 두 번째의 뜻에 해당한다. 한역의 뜻이 성경 해석학 이해를 불분명하게 하지만 원래의 뜻은 성령의 기능으로



할 사이에 공통된 요인이 있음을 볼 수 있다. 해석자의 해석 행위는 성령의 사역 없이는 불가능하다. 성령은 성령이 “오직 들은 것을 말하시며 자의로 말하지 않는다”(요 16:13) 라고 말한다. 성령이 듣는 것들은 예수님에 관한 것들이다(요 14:26; 15:26). 성령은 어떤 추상적인 것이나 공상적인 것을 말하지 않고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것(요 16:13-14), 아버지가 그에게 주신 그의 것들에 관해서(요 16:15) 말씀하실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성령이 중점적으로 설명하실 것은 예수님 사건들, 즉 구속적이고 역사적이며 기독교론적인 (Redemptive - historical - Christolog) 것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성령이 설명하실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재림을 계시의 절정으로 하는 그리스도의 사건을 초점으로 할 것이다. 바울 사도는 이를 사도적 유전(살후 2:15)이라고 가르쳤고 오늘날 우리들로 말하면 성경을 가리킨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성령은 결코 성경의 내용과 상충되는 설명을 하시지 않을 것이다.

성경 본문이 성립될 때도 성령에 의해 되어졌고 해석자가 본문을 이해할 때도 성령의 역사 없이는 불가능하다. 즉 성령의 역사는 본문과 해

석자에게 공통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해석자의 성경 해석 방법론이 성경 본문에 근거하여 만들어지지 않으면 해석자가 본문을 대할 때 상충되는 긴장을 느끼게 된다. 즉, 해석자가 올바른 방법을 소유하지 못했을 때, 해석자는 성경 해석적 긴장을 느끼지만, 성경에서 찾아진 올바른 방법을 소유했을 때는 성경의 완전케 하시는 역사로 성경 해석상 느낄 수 있는 어떤 긴장도 해소되는 것이다.

그런데 해석자는 성령에 의해 조종받은 신령한 자여야 한다.

고전 2:12 이하의 말씀은 신령한 자(ὁ πνευματικός)만이 신령한 것을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다고 말한다. 여기서 신령한 것은 “하나님의 깊은 것”(고전 2:10)이요, “하나님의 사정”(고전 2:11)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고전 2:12)이요,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고전 2:7)이며, “그리스도의 사건”(고전 2:8) 즉 십자가의 사건을 가리키고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계시의 사건과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이 모든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영적(pneumatic)”이라는 자격 규정을 소유한 신령한 자여야 한다. 신령한 자는 성령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이다(고전 2:12). 성령은 이처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신자들에게 알게 하고 분별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본문(고전 2:6-16)에서 신령한

“어떤 것을 어떤 사람에게 지적해 주거나, 어떤 사람이 어떤 것을 확신할 수 있게 해 준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자의 행위를 해석학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자연인은 분별할 수 없으나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일들(성경 해석 포함)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해석자는 성령의 사역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4) 성령의 주권적 승리

성령은 궁극적으로 승리하신다. 이 말은 성경 해석학적으로 볼 때 의미가 심장한 것이다. 궁극적인 전망으로 볼 때 성경도 성경 해석을 요구하며 역사의 주인되시는 살려 주는 영도 성경 해석을 요구하신다. 사실상 하나님의 언약은 그의 백성들의 해석적인 반응을 통해서 완성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해석적인 반응은 상대적(relative)이며 불완전(imperfect)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해석 활동은 대단히 의미 심장한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성경 해석은 전체 성경 해석사의 일부분이며 이와 같은 성경 해석적 행위는 종말에 이르러 완전해질 때까지 교회 내에서 유기적으로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교회는 성경 해석을 통해 그 진로를 결정하게 된다. 성경만이 교회가 필요로 하는 통찰력을 제공하는 자료가 된다. 그러나 교회는 성경 이외에 이전 세대가 소유한 전통도 전수받게 된다. 그러므로 다음 세대는 성경 해석을 할 때 전해 내려오는 전통을 잘 연구하여 어느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며 어느 것

이 인간으로부터 기인되었는지 조심스럽게 분간해야 한다. 한 세대가 진리를 잘못 해석했을 경우 다음 세대에 가서 언젠가는 이전 세대의 잘못이 밝혀지며 신자는 성경의 바른 뜻을 다시 계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sup>15)</sup>

교회의 역사는 성경 해석 역사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교회의 역사를 연구해 보면 때때로 비정통적인 성경 해석이 전체 교회를 주장하는 듯 보일 때도 있다.<sup>16)</sup> 그러나 성령은 교회가 바른 성경 해석의 궤도로 다시 들어설 수 있도록 주권적인 인도를 하신다. 교회의 성경 해석적 행위는 완전을 향해 유기적으로 계속 진행되는 것이다.<sup>17)</sup> 성경 해석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15) Leon Morris, *I believe in Revelation* (Grand Rapids: Eerdmans, 1976), p. 71.

16) Jerome의 유명한 경구에 보면 “The whole world groaned and marvelled to find itself Arian”(Jerome, *Dial. adv. Lucif.*, 19)이라는 표현이 나온다. 이 말은 그 당시 예수의 신성을 부인하고 예수가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다고 주장한 이단 아리안주의(Arianism)가 득세한 것을 증거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아리안주의는 그 후 니케야 회의에서 이단적이요 비기독교적인 것으로 정죄받았다.

17) Morris, *I believe in Revelation*, p. 70.



분량이 충분한 데까지 이를”(엠펙 4:13) 그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성령은 그 기간 동안 항상 그의 주권적인 인도를 하실 것이다.

#### 4. 현대 신학의 허점(虛點)

18세기의 계몽주의(The Enlightenment) 이후 이성에 입각한 역사가의 자율성이 강조되면서 성경 본문은 많은 공격을 받아왔다. 그로 인해 성경은 역사책 중의 하나로 전락되었으며 해석자는 그의 이성과 합리로 만든 도구를 가지고 성경 위에 군림하게 된 것이다. 성경 본문 중심적인 신학적 사고의 방향이 해석자 중심적인 신학적 사고의 방향으로 궤도 수정을 하게 된 것이다.

##### (1) 자유주의의 허점

자유주의자들은 자신의 이성에 근거하여 성경 내에서 믿을 것과 믿지 않아야 할 것을 구분한다. 그들은 성경의 초자연적인 성격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 내에서 인간의 타락,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그리스도의 속죄 죽음, 그리스도의 부활 등 초자연적인 성격의 사건을 제거시키기를 원한다. 여기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해석자의 임의적인 판단에 따라 성경 본문이 난도질 당한다는 사실이다. 결국 성경 해석에 있어서 권한의 소재가 하나님과 성경 본문으로부터 해석자에게 넘어가게 된 것을 볼 수 있다.

##### (2) 볼트만과 비신화화의 허점

볼트만(R. Bultmann)의 비신화화(Demythologization) 작업은 자유주의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생겨났다. 볼트만은 자유주의자들이 성경 내에서 비과학적인 내용은 버리고 남들 할 만한 것은 택하는 방법은 마치 목욕물과 아이를 같이 버리는 잘못과 같다고 비판한다. 왜냐하면 성경의 기본적인 메시지는 고대 세계의 사상 형태로 표현되어 있는데 자유주의자들은 성경의 메시지와 그 메시지가 표현되어 있는 방법을 같이 제거해 버리기 때문이라고 한다. 볼트만은 성경의 메시지가 신화적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신화적인 것과 비신화적인 것을 구분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다른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볼트만은 성경의 사상이 신화적인 방법으로 표현되었다면 그 모든 것을 버릴 것이 아니라 신화로 표현된 진리를 찾아 비신화적인 형태로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sup>18)</sup> 그는 이런 신학적 작업을 다른 종류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볼트만은 하이데거(M. Heidegger)의 철학적 표현 방식인 진정한 실존(authentic existence)과 비진정한 실존(inauthentic existence)을 구분하는 방법으로 기독교의 메시지를

18) 박형용, 「복음 비평사」(서울: 성광 문화사, 1985), pp. 179-183.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비진정한 존재는 죄와 낮은 본성의 능력 아래 있는 삶을 가리키며 진정한 존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삶을 가리킨다고 말한다. 그리고 비진정한 존재에서 진정한 존재로의 변화는 복음으로 선포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런데 볼트만은 역사적 사건에 무관심하다. 특히 예수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에 대한 역사적 사건에 관심이 없다. 그것들이 볼트만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는 “선포”가 구원을 가져오는 것으로 믿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역사적 사건들이 진정한 것이 아닐지라도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단순한 “사건”의 선포만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처럼 볼트만은 복음서의 대부분 내용에 대하여 회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

결국 볼트만은 역사 안에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행위로서의 메시지를 인간에 관한 일련의 사상으로 변경시켜 버린 것이다. 볼트만에게는 성경이 기본적으로 사람에게 관한 책으로 전락되며, 또 사람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책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볼트만의 입장이 자유주의의 전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성경 본문의 내용을 찾는 데 있

지 않고 해석자의 실존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음을 본다.

### (3) 새로운 해석학파의 허점

새로운 해석학파(New Hermeneutic)의 대표자는 후크스(Ernst Fuchs)와 에벨링(Gerhard Ebeling)이다. 이들은 성경 본문을 석의(Exegesis)하는 데 관심을 두지 않고 하나의 신학적 방법론을 제창한다.<sup>19)</sup> 그들은 성경 내의 케루그마(Kerygma)를 실존적으로 해석하려는 정도에 멈추지 않고 신약 전체를 실존주의적으로 해석한다. 그래서 페린(N. Perrin)이 그들의 신학 방법론을 가리켜 “New Hermeneutic”이라고 했다.<sup>20)</sup>

새로운 해석학파는 시간적 상대성을 본문과 해석자에 같이 적용시킨다. 따라서 본문은 역사의 흐름에 영향을 받으므로 절대성이 없고 해석자도 역사의 흐름에 영향을 받으므로 그의 해석은 의미를 찾을 수 없게 된다고 주장한다. 중요한 것은 본

- 19) Paul J. Achtemeier, *An Introduction to the New Hermeneutic*(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69), p. 87. “The new hermeneutic is therefore not limited to exegesis: it is a way of doing theology, and it will be better understood if that is kept in mind.”
- 20) Norman Perrin, “The Challenge of New Testament Theology Today”, *Criterion*, iv(Spring, 1965), p. 30, 33.



문과 해석자의 상호 작용을 통해 해석자의 존재 의미를 찾는 것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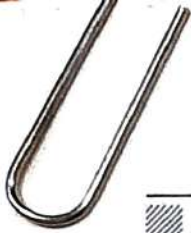
새로운 해석학파는 성경이 무엇을 말했으니 그대로 따라야 한다고 생각지 않는다. 그들에게 성경 본문의 의미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계속 변화되어질 수 있다. 에벨링이 예수를 “믿음에로의 증인(the witness to faith)” “믿음의 증인(the witness of faith)”, “믿음의 기초(the basis of faith)”로 부를 수 있지만 “믿음의 대상(the object of faith)”으로는 부를 수 없다고 한 사실도 신약이 신앙의 언어를 가르쳐 준다고 주장하는 그들의 입장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다.<sup>21)</sup> 그들은 성경 본문의 객관성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성도 부인하고 본문과 해석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개인적 주장을 통해 해석자에게 제공되는 실존의 가능성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비록 새로운 해석학파가 그들의 신학적 방법론을 전개할 때 새로운 색채를 그려낸 것만은 인정하지

만 계몽주의 이후 이성 중심의 실존적 해석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본다. 결국 그들은, 본문은 내동댕이치고 해석자의 주관적 실존에만 강조를 두고 있는 것이다.

### 정리하는 말

지금까지 성경 해석에 있어서 해석자의 위치를 다루었다. 성경 해석에 있어서 해석자는 어떤 경우건 주관성을 면할 길이 없다. 그러므로 해석자는 항상 겸손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 본문을 대해야만 한다. 그리고 객관적인 성경 본문의 의미를 찾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전체 세대를 위해 하나님의 객관적 계시로 주어진 성경 본문을 떠나 해석자의 주관성에 의존하면, 성경 해석은 해석자의 개인차가 다양한 만큼 성경 해석적 무질서와 혼돈으로 빠지게 되며, 유기적인 진전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현대 신학의 허점은 객관적인 본문의 의미는 찾으려 하지 않고 해석자의 실존적 의미를 찾는 데만 그들의 모든 시간과 정력을 쏟는 데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현대 신학은 시류를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해석자가 처한 형편에 따라 신학이 계속 변화를 거듭해야 하는 것이다. 이 경우 성경 본문은 신앙과 생활의 규범이 아니요, 해석자의 실존을 찾는 데 들러리 역할

21) C. Van Til, *The New Hermeneutic* (Philadelphia: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 Co., 1974), p. 6. "The New Testament is itself a text-book in hermeneutic. It teaches the hermeneutic of faith—in brief—the language of faith."



## 지상 논란

만 하게 되는 것이다. 사실상 해석자의 실존적 의미를 찾는 데는 성경 본문 이외에 다른 서적에서도 찾을 수 있지 않느냐고 반문해 볼 수 있다. 그만큼 현대주의자들은 성경 본문의 중요성을 저버리고 해석자 중심으로 전략해 버리고 만 것이다. 우리는 본문을 붙들어야지 해석자에 매어달릴 수는 없다.<sup>22)</sup>

22) 성도들이 색연필로 줄을 쳐 가며 성경을 읽는 습관은 권장할 만한 습관이다. 하지만 밑줄 친 곳이 대부분의 생활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도덕적인 진술들에 그친다는 사실은 우리들의 성경에 대한 태도를 간접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 성경은 구속 역사를 증명하거나 해석하고 있는데 그런 책을 읽으면서 도덕적인 진술에만 밑줄이 그어져 있는 것은 우리의 주관성이 강하게 작용했음을 함축하고 있다. 본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는 성경을 읽는 우리의 습관에서도 본문의 의도가 바로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도서정보

편집실 제공

### 목회자의 리더십

김 상 복 지음

(워싱턴 신학대학 목회학과 주임 교수)

엠마오/225쪽/2,800원

본서는 처음 출간된(처음 출간시의 제목은 「교회와 목회자의 리더십」)지가 좀 지났으나 아직 읽지 못한 목회자를 위해 놓치기가 아까운 책이라 여기 소개한다.

본서의 앞 부분(1-4 장)에서는 각 장마다 다윗의 모습을 추출, 적용하여 교회 지도자의 모습을 실제적으로 그리고 있다. 목회자에게 필요한 것은 지식, 인격, 기술, 리더십이며, 리더가 되려면 환경 극복, 오늘에 충실, 자신을 매력있게 개발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기능을 미리 개발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어야 하며, 리더의 모습은 거룩한 삶, 주위 인물을 위대하게 만드는 능력, 원만한 인간 관계, 희생적인 사랑, 겸손한 자세, 회개와 생활이 있는 사람임을 너무도 절실하게 진술하고 있다.

뒷 부분에서는 저자의 경험에 비추어 지도자의 모습을 다루고 있는데 어느 하나 빠뜨리기 아까운 사항들을 거론하고 있어 모든 목회자들의 지침서요 필독서라 일컬음에 주저함이 없다.